

 건설교통부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 Trust Builder		보도자료		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
		배포일시	2007. 7. 4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철도운영팀	담당자	• 팀 장 임주빈, 사무관 강 욱 • ☎ (02)2110-8265, kangwook@moct.go.kr	
보도일시		2007년 7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하반기에 달라지는 철도-전국민 예약제 실시 등

- ☐ 하반기부터 철도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철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. 이와 함께 KTX에 영화 객차가 운영되고 우체국에서도 열차 승차권 구입이 가능해지는 등 철도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.

<승차권 예매 누구나 가능해진다---전국민 예약제 실시>

- ☐ 7월 10일부터 모든 국민들은 철도공사 홈페이지(www.korail.com)를 통해 철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.
- 지금까지 철도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객들은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없었다. 이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 승차권 구입이 어렵고 승차권을 구입을 위해서 철도역을 직접 방문하여 매표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- ☐ 이번 전국민예약제의 실시로 비회원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철도 회원과 같이 열차와 할인상품 등을 선택하여 인터넷 예약과 발권을 할 수 있으며
-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예약과 동시에 SMS, 홈터넷 등으로 발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300km로 움직이는 영화관---KTX 영화객차 운영>

- 7월 12일부터 KTX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. 모든 KTX 1호차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일반 영화관과 비슷한 7,000원으로 19일까지는 이용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한다.
- 상영구간은 경부선 운행 열차의 경우 광명~구포(140분)/동대구(104분) 사이, 호남선 운행열차는 광명~장성(126분) 사이이다.
- KTX 영화객차 운영으로 KTX를 이용하는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이용객들은 움직이는 영화관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.
-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는 7월 4일(수)에 서울~동대구간을 운행하는 KTX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가졌다.

<집근처 우체국에서 철도승차권 구입을---철도승차권 우체국 발매>

- 7월 중순부터는 우체국에서 철도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. 우선 승차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100개의 우체국에서 승차권 발매가 시작되며 앞으로 이용수요에 따라 전국의 우체국으로 판매망을 넓혀갈 계획이다.
- 우체국에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객들은 추가요금 없이 원하는 시간대의 승차권을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게 되어 열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.
- 이와 함께 하반기에 이용이 편리한 홈페이지 구축, 현금 자동 발매기의 도입을 추진하고, 고속철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.